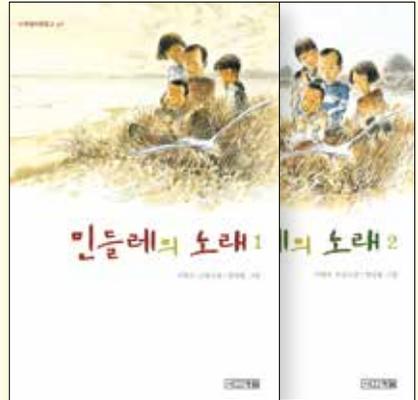

꽃을 피우기 위해 어둠을 직시한 아이들

4·19혁명

6학년 1학기 사회

-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3)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4·19혁명 #6·25전쟁 #근현대사



민들레의 노래 1, 2
이원수 지음 | 양상용 그림

『민들레의 노래』는 우리나라의 아픈 근현대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과 4·19혁명입니다. 현우가 고아가 되어 정미네 집에 얹혀살게 된 것은 한국 전쟁 때문이고, 경희가 오빠를 잃은 것은 4·19혁명입니다. 물론 주인공 공들은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 영향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주인공 현우와 경희의 슬픔과 고통, 용서와 화해를 생생하게 실감해 봅니다.

책 속에 숨은 역사



1. 4·19혁명이 일어난 이유

49혁명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고살기 힘들었습니다. 호야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이유도, 경희가 가난한 집안살림을 걱정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보다, 부정 선거 등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를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2. 4·19혁명의 과정과 결과

1960년 3월 15일 마산을 시작으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3·15 의거 당시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이 희생당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나이 어린 학생까지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49혁명을 통해 국민들에겐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의식이 싹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49혁명은 훗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기 준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가 주춤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1. 국립 4·19 묘지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묘지에는 4·19혁명 때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또 부상자와 유공자 등 그 뒤에 숨진 이들과 295명의 영령도 모셔져 있습니다.

국립 4·19 묘지에는 10살 소년이 묻혀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독재타도를 외치던 형과 누나들을 따라 시위대 앞에 있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임동성 어린이입니다. 당시 중암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4·19혁명 당시 희생된 185명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곳에는 '4·19혁명기념관'도 있어 4·19혁명은 물론이고, 당시 시대적 상황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19혁명에 참여, 희생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진영숙의 편지 등 생생한 4·19혁명 이야기를 만나 봅니다.



국립 4·19 묘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 4·19혁명에 참여, 희생된故진영숙



2. 4·19혁명기념도서관

서울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이승만 정부의 부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집터입니다. 이기붕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꾸민 인물입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궁지에 몰린 그는 가족과 함께 죽었

습니다. 그 후 그의 집을 국가가 환수하여 오늘날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1층에 가면 4·19혁명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려대 4·18 기념탑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3·15 부정 선거 이후 이승만의 독재 정치를 참을 수 없었던 고려대 학생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교문을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지금의 시청 옆 옛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시위하다가, 정치 깡패들이 휘두른 폭력에 무고하게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다음 날 있을 4·19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4. 국립 3.15 묘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 3·15 묘지에는 3·15 마산 의거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사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압제의 사슬을 끊고
분노의 불길을 터뜨린 아! 1960년 4월 18일! 천지를 뒤흔든 정의의 함성을
새겨 그날의 분화구 여기에 돌을 세운다.

- 4·18 기념탑 비문



4·19혁명기념도서관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기념관이 있어 3·15 의거에 대한 모든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를 비판하며 마산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가 거세지자, 무장한 경찰이 동원되었고, 그때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시신이 수습되면서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게 되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현장에 다녀와서 무엇을 할까?

1. 1960년대 시대 상황 알아보기

한국 전쟁은 정치가와 군인들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의 대립과 증오는 평범한 현우네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 전쟁의 후유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독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일도 생겼습니다. 『민들레의 노래』의 현우 삼촌처럼 말입니다. 미움과 오해를 딛고 용서와 화해를 꿈꾸며 서로를 아끼는 주인공 아이들의 마음은 그래서 더 소중한입니다.

동화 속 많은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사는 현우나 늘 돈벌이를 꿈꾸는 호야, 가난한 집안 살림을 걱정하는 경희의 모습은 1960년대 우리 사회의 평범한 풍경입니다. 이후 사회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사회 참여의식으로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오늘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옛 신문에서 4·19혁명 찾아보기

여러 사료를 활용해 직접 역사를 탐구하는 일은 흥미롭고 효과적인 역사 공부입니다. 현대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료가 풍부합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아주 좋은 사료입니다. 옛 신문 기사를 통해 1960년 4월 19일로 역사 여행을 떠나 봅시다.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생생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옛날 뉴스 검색(newslibrary.naver.com)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의 누리집에 가면 1960년 3·19 부정 선거와 4·19혁명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자가 많고, 세로로 쓰여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만화 자료는 아이들 스스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광고 등을 통해 1960년의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 ★ 한국출판인회의 선정도서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우수문학도서